

가족돌봄 부담과 간병살인이 경고하는 것



전 용 호 교수의
龍虎相生 복지이야기

노인돌봄에는 공식서비스만으로 보이지 않는 거대한 영역이 있다. 배우자와 자녀가 식사를 챙기고 병원을 동행하며 노인의 곁을 지키는 '비공식돌봄' (informal care), 즉 가족돌봄 또는 무급돌봄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장기요양체계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다. 주변의 중장년층만 봐도 그 무게를 쉽게 알 수 있다. 노부모가 차매나 뇌졸중에 걸리면 배우자가 먼저 돌보고, 그 한계를 자녀가 메운다. 특히 딸과 며느리, 아내 등 여성에게 돌봄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 OECD에 따르면 비공식돌봄자의 약61%가 여성이다. 한국에서도 여성의 무급 가사·가족돌봄 시간은 남성 보다 훨씬 길다. 가족을 지탱해 온 이들의 시간과 수고는 막대하지만, 이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휴식·소득·노후까지 지원하는 체계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더 큰 문제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늘지만 돌봄을 제공한 가족의 역량은 줄어든다는 것이다. 2025년 65세 이상 인구는 1051만 명, 전체 인구의 20.3%에 이르렀다. 장기요양 인정자도 2021년 약 95만 명에서 2026년 6월 127만5000 명으로 늘었다. 반면에, 저출산으로 자녀 수와 가족 규모는 줄고 노인을 돌보려는 부양의식도 약화되고 있다. OECD도 가족 규모 축소와 여성 경제활동 증가 등으로 비공

식돌봄 공급이 감소할 가능성을 지적한다. 그 한계가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간병살인'이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2007~2023년 유죄가 확정된 간병살인 228건을 분석한 결과, 75.8%가 다른 가족의 지지 없이 혼자 독박으로 간병한 사례였고 25.4%는 범행 후 자살을 시도했다.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간병살인은 때로 끝이 보이지 않는 힘든 간병의 긴 터널을 극단적인 방식으로 끝내려는 절망의 표출이다. 이는 몇몇 가족의 비극을 넘어 비공식돌봄의 지속가능성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경고다.

가족돌봄자의 지원에 한국은 매우 소극적이다. 영국은 가족돌봄자의 지원욕구를 별도로 평가하고, 독일은 일정 요건의 가족돌봄자에게 연금보험과 대체돌봄을 지원한다. 덴마크는 지방정부가 재가돌봄을 책임지면서 가족이 지쳤을 때 다른 사람이 돌봄을 대신하거나 일정 기간 별도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족이 돌보더라도 모든 책임을 가족에게 떠맡기지 않는 것이다.

한국도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확대했지만 가족의 장기적인 부담을 덜기에는 부족하고 이용 실적도 미비하다. 더 근본적으로는 줄어드는 비공식돌봄을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같은 '공식돌봄'이 적극적으로 대체해야 한다.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의 공급과 서비스 품질도 높여야 한다. 몇 시간의 서비스 뒤 나머지 시간을 다시 가족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방식으로는 중증의 치매나

와상의 노인을 감당하기 어렵다.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생각도 바뀌야 한다. 재정을 적게 쓰는 것이 지속가능성은 아니다. 공식돌봄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으면 절약된 비용은 가족의 돌봄시간 증가, 노동시장 이탈, 소득 감소와 건강악화라는 사회적 비용으로 옮겨간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이다. 보험재정이 안정돼 있어도 가족이 돌봄 때문에 직장과 건강, 노후를 잃는다면 그 제도는 지속 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장기요양보험은 재정을 아끼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돌봄위험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기 위한 사회보험이다.

공식돌봄 확대에는 반드시 재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로 소폭 인상됐다. 이제는 앞으로 보험료를 어느 수준까지 더 부담하고, 그 재원을 돌봄시간·인력·품질 확대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사회적으로 적극 논의해야 한다. 낮은 보험료의 대가를 가족의 시간과 건강으로 치르는 것은 비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숨기는 것이다. 이제 질문은 '가족이 언제까지 버틸 것인가'가 아니다. 가족이 감당할 수 없게 된 돌봄을 공식돌봄이 얼마나 충분히 대신할 수 있는가가 되어야 한다.

간병살인은 심각한 경고음이다. 재정을 덜 쓰는 제도가 아니라 돌봄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지 않고 노인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제도, 그것이 지속가능한 장기요양보험이다.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넥스트케어(돌봄혁신허브) 대표

국가 안보엔 與野가 없다



기지 수첩
박 경 수
(정치부)

나라를 지키는 군복에는 어느 정당의 이름도 새겨져 있지 않다. 국군 장병들은 자신이 지키는 국민의 지지 정당을 묻지 않는다.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정치도 그해야만 한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의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아군의 지뢰 매설 기록이 없고, 부상 장병의 장구류에서 트리니트로톨루엔(TNT) 성분과 갈색 이물질이 검출됐지만 철제 파편은

나오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군의 발표로 북한군 지뢰에 의한 피해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앞으로 정치권이 집중해야 할 것은 남은 의문을 밝히고 필요한 대응을 마련하는 일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강신철 국방부 장관에게 북한이 새롭게 매설한 지뢰에 의한 폭발이라면 명백한 침략 행위라며 강경 대응을 요구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장병과 군의 안전을 위해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두 요구는 함께 충족돼야 한다. 철저한 조사가 책임 있는 대응의 근거가 되고, 후속 조치가 있어야 원인 규명도 의미를 갖는다.

정부와 군은 지뢰의 실체와 매설 경위를 마지막까지 규명해야 한다. 조사·보고 과정

에서 언제 무엇을 파악했고 어떤 판단에 따라 조치했는지도 설명해야 한다. 북한의 책임을 묻는 일과 우리 군의 대응에 빈틈이 없었는지 점검하는 일 역시 필요하다. 야당의 의혹 제기도 근거에 충실해야 한다. 장 대표는 조사 지연과 사고 축소·은폐 의혹을 대통령의 지시와 연결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이를 지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장조사 착수와 중간 조사 결과 발표까지 시간이 걸린 이유, 그 사이 어떤 보고와 지시가 오갔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여당 역시 말에 그쳐서는 안 된다. 투명한 조사와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면 실제 조사 과정과 후속 조치도 끝까지 살펴야 한다.

/gws0325@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30일 (음 8월 20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모든 것은 시와 때가 있는 법입니다. 60년생 주의 깊은 통찰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72년생 원하는 일은 빨리 이루어집니다. 84년생 굳건한 마음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49년생 어렵게 일을 풀어 나가게 됩니다. 61년생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73년생 분수에 넘치는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85년생 귀한 손님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50년생 의지할 곳이 없으니 외롭고 서러운 마음입니다. 62년생 건강에 유의하세요. 74년생 사업에서 방심은 금물입니다. 86년생 남의 말을 너무 그대로 믿지 마세요.

51년생 단시일 내에 이루려는 꿈은 불길합니다. 63년생 반드시 길하게 됩니다. 75년생 순리에 따르도록 하세요. 87년생 눈앞에 보이는 이윤에 뛰어들려 하지 마세요.

52년생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면 좋습니다. 64년생 안정된 자세로 천천히 자신의 길을 가세요. 76년생 운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88년생 생각한 바를 자신 있게 밀고 나가세요.

53년생 모든 것을 순서대로 차근차근 하세요. 65년생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77년생 유혹에 흔들리지 마세요. 89년생 안정을 취하며 조금 여유를 갖는 게 좋을 합니다.

54년생 단순한 놀이에 목숨 걸고 달려들지 마세요. 66년생 거짓말은 신용을 잃게 하는 것이니 삼가하세요. 78년생 만물엔 이치가 있는 법. 90년생 순리에 역행하는 생각은 멀리하세요.

55년생 돌아오는 것이 큰 것이라 길운입니다. 67년생 뜻밖의 재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79년생 이곳 저곳에서 이익을 들이느라 바쁩니다. 91년생 남쪽에 좋은 인연이 있습니다.

56년생 시비에 가담지 마세요. 68년생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80년생 노력에 공전하고 손실이 있었을 것입니다. 92년생 약속을 지켜라. 불가하면 사전에 양해를 얻어 구설을 차단하세요.

57년생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길하지 못합니다. 69년생 길한운의 절정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81년생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세요. 93년생 유쾌한 하루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58년생 뒤로 자빠졌는데 코가 깨지는 격입니다. 70년생 의지할 곳이 없으니 외롭고 서러운 마음입니다. 82년생 안정을 취하고 힘을 비축 하세요. 94년생 건강에 유의 하세요.

59년생 가정에 경사가 있어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71년생 불의를 멀리하도록 하세요. 83년생 여기저기 자랑을 늘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95년생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김상회의四季 명예로운 이름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아주 익숙한 속담이니 호랑이는 죽은 뒤에 멋지고 귀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은 뒤에 자신의 이름과 업적을 세상에 남긴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살아 있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후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기억하게 된다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 사람은 욕망이 크다. 존중받고 싶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고, 자기가 살아온 삶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란다. 명예를 돈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돈은 자녀에게 물려줄 수도 있고 쓰면 없어지지만, 명예는 자신의 이름과 함께 오래 남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원한다고 해서 누구나 존경받고 명예로운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 누구는 갖은 애를 써도 명예를 얻지 못하고 누구는 뜻하지 않게 후세에 명예로운 이름을 남기기도 한다.

상당하다 보면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이나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에게서 명예에 관한 조바심 넘치는 질문을 받곤 한다. 명예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잘 알기에 더 조바심을 낸다. 명예도 사주팔자의 영향을 받는데, 명식에 따라 명예를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한다. 명예를 얻는다고 해도 자기 그릇의 크기에 따라 유지하는 힘이 다르다. 관성이 강한 사주는 명예와 관련한 기운이 좋다고 본다. 사주에 관성이 어떻게 자리하고 있느냐에 따라 조직에서 또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정관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사주는 별다른 노력 없이 명예를 얻기도 한다. 문제는 지나친 욕심이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집착할 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명예는 욕심낸다고 얻어지지 않는다.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하다 보면 저절로 이름이 남는다. 지나친 욕심은 명예를 허영으로 만들고, 허영은 때로 망신으로 돌아온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6004호	
일간 메트로경제 < 유료, 월 2만원 >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08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